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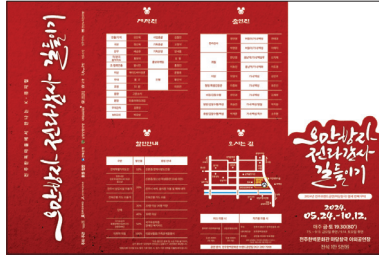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개막

'전주브랜드공연' 24일 전주한벽문화관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서... 10월 12일까지 진행

전주브랜드공연이 오는 24일 막을 올린다. 2024년 마당창극은 전라감사, 전라관찰사, 선자청, 전주8경 등 지역 소재를 활용한 지역 연계성을 강화했고, 또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람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열세 번째 무대를 맞아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은 16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백옥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연을 이끄는 오진욱 연출과 주연배우 네 명이 자리했다. 올해 첫 주연으로 발탁된 박현영(전라감사 역), 한단영(계월 역), 작년 주연으로 열린한 정민영(전라감사 역), 그리고 이효인(계월 역)이 "그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관객들에게 재미있는 공연을 선보일 것을 생각하니 설렌다"며, 공연의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마당창극에서 앙상블 역할을 이어오다 올해 처음 주연 배우로 발탁된 이효인 씨는 9살부터 관소리를 시작해 어린이 예술단에서 무용,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등을 배우며 꿈을 키워왔다. 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리와 한층 성장한 연기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전주한벽문화관(관객 김철민)에 따르면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포스터

10월 12일까지 열리는 마당창극은 작년 초연 작품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작년 초연작에 각색(오진욱), 극본(정선욱)과 음악(홍정희), 인무(배승현)를 더 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고, 관객들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해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가 주최하고 (재)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공연은 관광객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토요일 공연에서 금요일 공연 10회차를 더해 총 30회 관람할 수 있다. 이는 금요일에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당창극을 선보여 체류형 관광 상품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라관찰사, 전주 8경, 선자청 등 전주만의 이야기와 소재를 활용한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전체 관람가로 진행되며, 10월 12일까지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네이버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5,000원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민과 전주 시민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주 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에게도 할인 혜택을 적용, 한옥마을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재)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전주의 소재에 우리 소리와 춤, 해석적인 요소를 잘 버무려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고자 노력했다"며 "전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은 전주브랜드공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간 상설공연을 통해 전주가 스치는 관광객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jcf.or.kr) 또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http://www.jt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70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제94회 미스춘향 진에 김정윤씨

8명 수상자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는 지난 15일 진행된 제94회 춘향선발대회에서 △진(眞) 김정윤 씨(20, 서울 마포구)를 선발하고 △선(善) 안지민 씨(21, 서울 서초구) △미(美) 장서현 씨(20, 서울시 서초구) △정 맹희정 씨(21, 서울시 노원구), △숙 박재운 씨(21, 경기도 성남시) △현에 김도이 씨(24, 서울시 서초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글로벌 뮤즈에는 인도네시아에 오수아(18,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우새블(21, 미국)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춘향 진에는 상금 1,000만원, 선에는 300만원, 미에는 200만원, 정·숙·현에는 100만원, 글로벌 뮤즈에게도 각 100만원, 우정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으며, 8명의 수상자들은 16일 오후 2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춘향 진에 선정된 김정윤씨는 "정말 꿈꿔오기만 했던 춘향 진의 영광이 제게 주어져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원, 그리고 춘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춘향 진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올해부터 글로벌춘향선발인 세계적인 대회로 전환된 만큼 책임지고, 보

다 남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해에서 17년을 거주하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글로벌 시각, 부모님을 통해 배운 '정통'과 '열'을 활용, 앞으로 춘향의 열과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화두인데, 현재 의류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만큼 향후 지구를 위한 친환경 한복을 만들어 남원과 춘향을 알리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3년간 춘향 홍보대사로서 남원과 춘향을 다채롭게 알리는 데 매진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아트플레이 숲속마켓' 개최

작가와 대화 · 공연 등 진행



만지고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페탈예술기획, 이희상그룹, 이소문재즈밴드 버스킹 팀 공연과 봄나들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피크닉존을 조성해 파라솔, 돛자리, 빈백을 제공하여 도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와 오후 1시 30분부터 모악산 및 미술관 주변을 정화하는 플로깅(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 자연재료를 재활용해 작가와 함께 창작,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아트 플로깅'이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100명을 모집하며, 참여자 모두에게 플로깅 키트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후 텃밭리 사용,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미술관에서 할동을 한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 후 인증을 하면 커피바 연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jonbuk_museumart), 페이스북(jonbuk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교육문화팀(063-290-688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베트남 관광객들, 태권도원 투어 즐긴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외래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권도 관광 상품을 개발, 한류 대표 콘텐츠인 태권도를 통해 베트남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8일과 19일, 30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체험과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231만 4천㎡(70만 평)에 달하는 태권도원 투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여행사 대표자 팸투어를 비롯해 5월 4일과 5일, 14일과 15일 각 30여 명의 베트남 태권도 관광 상품을 운영한 바 있다. 태권도 관광 상품 참가자들은 '태권도북'을 읽고 태권도원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즐겼으며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과 격파와 품세 등을 볼 수 있는 '태권도원 상설 공연' 관람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4일과 5일 태권도원을 다녀간 스포츠 관광단들이 올린 SNS 게시물을 본 현지인들이 태권도 관광 상품 신청에 불려며 14~15일, 18



~19일 상품은 이들 만에 고객이 완료되는 등 핫한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외에서 오는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노력하고 있다"며 "인류 원조 격인 태권도를 활용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원을 찾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말까지 2천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7일과 8일, 9일과 9일 각 1박 2일 태권도 관광 상품도 매진되는 등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흑석골 어린이 대축제' 18일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8일 전주 흑석골 일원에서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흑석골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전주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드림캐처 만들기(사전예약) △전통한지뜨기 체험 △어린이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에어바운스 △미술수 등 마련했다. 다회용 용기를 가져오는 어린이에게 띄워주고 아이스티를 무료

로 제공한다.

특히 행사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스탬프 투어를 함께 진행, 스탬프를 모두 획득한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가족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많은 분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흑석골 발전을 위해 주민 기관,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17일 전북종합사회복지관과 '흑석골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봄날의 재즈 여행 - 김혜미 밴드 재즈콘서트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은 5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봄날의 재즈 여행 - 김혜미 밴드 재즈 콘서트'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솔로리스트이자 재즈팀 리더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혜미는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 탁월한 음악성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대중과 평가단이 가장 신뢰하는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과 협연하는 등 장르를 초월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재즈도 이렇거나 다이나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재즈 보컬리스트 김혜미를 주축으로 그녀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해 주는 음악적 동료들로 구성된 Vocal Quartet(사중주단)으로 피아니스트 강지은, 베이스리스트 김인영, 드러머 최요셉은 아름다운 멜로디 사이를 넘나드는 치밀하고 긴장감 넘치는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La vie en rose', 'Besame Mucho', '남민에대하여'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해 깊이 있는 목소리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무대를 준비했다.

관람권 판매는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청년 문화 예술프로젝트 예술인유치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7일까지 '2024 청년 문화예술프로젝트 예술인유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기획자, 활동가들과 단체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문화기획을 통해 지역과 청년 문제의 해결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공고와 참여신청서는 재단 누리집(www.j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 기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소모임에는 350만원의 프로젝트 진행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홍보, 행정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청년 문제, 인구소멸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A 유형은 기존과 같이 소모임을 모집 운영하며, B유형은 지역 청년들과 함께 희망하는 개인을 모집해 팀 빌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 청년이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바라보며, 주제가 왜 문화 예술적 방식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때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내 청년 기획자,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시작된 청년 문화예술프로젝트 예술인유치는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지난 3년간 총 3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문화팀(063-230-7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상반기 광한루원 상설 공연 진행

남원시립국악단은 5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상반기 광한루원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 94회 춘향제에서 열기를 이어가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수오상설공연 전통소리청은 오전 11시 오후 2시 원월정 누각 위에서 전통 민속악 공연으로 펼쳐지고 △금요 상설공연 광한루의 밤 풍경은 저녁 8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민속악, 창작국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이 버스킹 형식으로 진행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요 상설공연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라는 저녁 8시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공연, 이 공연은 지난 2023년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 매회 만석의

이론 작품으로, 춘향가가 가지고 있는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방자라는 캐릭터를 부각해 새로운 시선으로 가볍고 해학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갔다.

남원 창극 5월 18일 개막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1만원이고 온라인예매 할인, 남원시민 할인, 숙박 할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연 예약은 인터파크 티켓과 현장 발권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남원시립국악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방자, 춘향을 말하다'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이하 지역브랜드)'에 선정된 남원시가 오는 18일 남원 광한루원에서 막을 올린다.

지역브랜드는 도내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설 공연을 지원해 예술의 관광 자원화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상반기 공연을 마친 뒤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개막하는 남원시(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는 공연은 방자'의 시선으로 춘향가를 재해석한 공연으

로, 해학과 풍자는 물론 화려한 군무와 관소리의 깊은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재단 관계자는 "브랜드공연은 각 지역을 특색을 담아 전북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브랜드는 올해 전주시(런파이브), 익산시(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남원시(남원시립국악단), 김제시(예술집단열린), 임실군(임실평림농악보존회), 고창군(고창농악보존회) 등 6개 지역으로 6~10월까지 상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공연은 무료이며, 이후 관람료는 1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립국악단(063-620-5583, 6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